

# 신안 대파 스마트농법으로 키운다

농진청과 시범지구 조성 운영 협약  
내년 20~30 가구 30~40ha 조성  
연작지 관리 체계 구축 피해 최소화



신안군이 내년부터 3년간 40ha(30가구)를 대상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해 대파 재배 경쟁력을 강화한다. 스마트 자동 관수·장비 체계가 갖춰진 자은면 백산리의 한 대파 밭. <신안군 제공>

대파 최대 주산지인 신안군이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해 대표 소득작물을 육성한다. 신안군은 최근 농촌진흥청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신안군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10억원을 들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해 대파를 생산한다. 신안군은 내년 상반기 대파 농가 20~30가구를 모집해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30~40ha 규모로, 스마트 관수와 병해충 관찰, 농작업 자동화 등 농촌진흥청의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이 적용된다. 신안군은 대파 최대 주산지로, 이달 현재 748가구가 1509ha 규모 대파 농사를 짓고 있다. 신안 대파는 다른 밭작물보다 가루당 재배 규모가 크고, 기계화율이 높아 스마트농업 도입에 최적화된 작물로 꼽혀왔다. 신안군은 지난 2016년부터 스마트농업을 도입해 올해까지 96ha(60가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관수·관비 자동 체계를 구축해왔다.

5월에 모종을 심는 대파는 다음 해 봄까지 출하된다. 재배 기간이 길어 토양 양분 불균형으로 인한 연작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생육 초기에 집중 호우가 내려 생산량과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를 겪었다. 신안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작지 관리 체계'를 구축해 재배 예방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노지 스마트농업을 강화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안 대파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신안군이 대파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의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개관 6개월 목표모자아트갤러리 원도심 문화 공간 자리매김

주민·관광객 6000여명 방문  
모자 350여점·미디어아트 전시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목표모자아트갤러리에 개관 6개월간 6000명이 찾았다. <목포시 제공>

개관 6개월을 맞은 목표모자아트갤러리가 목표 원도심의 대표적인 전시·문화 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표모자아트갤러리는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로 지난 7월7일 문을 열었다. 갤러리 터는 지난 1927년 개업 당시 원도심 중심부에 자리 잡은 유일한 조선인 가게 '갑자육모자점'이 있었던 곳이다. 이곳은 100년간 운영되며 근대역사문화와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인식돼왔다. 목표모자아트갤러리는 개관 후 6개월 동안 6000여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방문했다. 이곳은 모자를 소재로 다양한 전시·체험·판매가 이뤄지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2개 관으로 구성됐으며 350여 점의 모자 전시와 미디어아트 작품 전시, 모자 각인 체험, 개방성 수장고 등이 마련됐다. 관람객들은 태블릿 PC를 활용해 세계 모자 체험을 할 수 있고 직접 고른 자수를 새길 수 있는 모자 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고(故)김영자 화백이 생전 착용한 모자 132여 점을 기념방이 전시하고 있다. 목표시 관계자는 "전시 모자를 확대하고자 유망

인들이 착용한 모자와 역사성을 지닌 모자를 기증·대여받아 기획 전시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해남군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212억 확보 살기좋은 농촌마을 기반 확충 박차 가한다

빈집 20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용

해남군이 농촌마을 기초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농촌활력 분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 올해 대규모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산이 급호 농촌공간정비사업(127억원)과 계곡 둔주, 북평 신흥, 송지 마봉, 북평 영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80억원), 현산면 농촌유류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4억5000만원) 등 총 212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산이면 급호마을에 대해 2027년까지 폐교, 폐공장, 축사 등 유휴시설을 철거하고, 정비된 부지에 어울림센터, 귀농인임대주택, 다목적작업장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생활서비스 공급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계곡 둔주, 북평 신흥, 북평 영전, 송지 마봉 마을은 취약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

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초인프라 정비, 주택정비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산면 일평리에는 농촌유류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과거 예비군중대로 사용하던 유류시설을 리모델링 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미디어 문화 향유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농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민관협력 농촌빈집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마산면 10호, 북평면 10호를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 및 마을호텔로 활용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사업 발굴 등과 함께 선정 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내년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따라 철저히 준비해 변화하는 농촌지역개발 정책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영광군, 전남도 인구정책 평가 우수상

청년마을·난임부부 지원 호평

영광군이 전남도가 주관하는 인구정책 추진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수상 성과를 달성했다. 영광군은 최근 여수 라마다프라자에서 열린 '2023년 전라남도 인구정책 추진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인구 문제 극복 노력 정도를 비롯해 정책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영광군은 지난해 장려상에 이어 올해는 한 단계 올라선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으로 이어진 우수 정책은 '청년들이 합

께 꿈꾸며 도전하는 청년마을 조성'과 '난임부부, 아이 원하면 끝까지 지지하는 영광' 시책이다. 영광군은 올해 함께출산을 4년 연속 전국 1위 달성하고 함께 인구정책 추진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수상하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행복한 지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인구감소로 지방소멸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인구정책 분야에서 이룬 성과는 군민들이 모두가 하나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다양한 인구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형원 기자 kcw@kwangju.co.kr

# 영암군,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접수

26개 사업...1월 17일까지

영암군이 농업농촌 분야 신기술을 농업인에게 보급하는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오는 1월1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능성 품종 활용 쌀 생산단지 실증시범 ▲원예작물 고온피해 경감 기술보급 시범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 등 26개 사업이고 49개소에서 진행된다. 사업 신청은 사업별 해당 작목을 경작·사용하는 농업경영체등록 영암 농업인·단체·법인이다. 시범사업의 특성상 신청인은 신기술을 적극 도

입하고, 사업장을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반상회보, SNS, 영암e광 등에서 사업 내용을 확인한 다음 센터 또는 읍·면농업인상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현지조사와 농업인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6일 최종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새 기술 보급과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1644-7990**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